

#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의 한마당

## 제3회 군내면민 송년의 밤 개최

군내면방위협의회(추진위원장 이두원)는 12월12일 오후5시 용정회관에서 서장원 포천시장,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 이우형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군내면 기관단체장 및 방위협의회 회원, 군내면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제3회 군내면민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장원 포천시장은 "군내면은 사회에 유능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고장"이라며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연말을 보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은 "매년 개최되는 주민화합의 자리가 지역발전과 군내면민 화합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자리를 마련

해준 군내면과 방위협의회에 감사드리며 군내면 출신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임해가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군내면 발전 유공자표창과 김진태 군내면장이 올 한해 동안 일귀년 업무성과와 경과보고를 했다.

유공자 선정은 방위협의회가 군내면 공직자를 선정하고, 군내면은 방위협의회 업체 중 모범사업과 지역발전과 봉사활동에 나선 면민을 선발해 격려했다.

2부 행사는 방일수 코디디언의 사회로 만찬과 더불어 군내면 기관단체에서 사전 선별된 면민 노래자랑이 이어져 주민화합의 잔치가 무르익었다.

이번 행사는 군내면방위협의회



군내면방위협의회는 12월12일 오후5시 용정회관에서 서장원 포천시장,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 이우형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군내면 기관단체장 및 방위협의회 회원, 군내면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제3회 군내면민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사진·조성구 기자)

와 의정부시, 양주시 소재의 기업 등 외부현장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경품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해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새마을지도자 임동직 대통령훈장 받아

### 12월11일 인천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임동직(사 진·48) 새마을 지도자포천시협의회장이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된 2008년 선진화 새마을운동 선포 및 전국지도자 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날 임 회장은 새마을운동 유공으로 새마을훈장 노력자상을 수상했다.

임 회장은 1991년 무림2리 새마을지도자로 선임되어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2000년 소흘읍 협의회장, 2005년 새마을지도자포천시

협의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17년8개월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해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민간단체로서 새마을단체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봉사단체로서의 인식을 갖는데 중점을 두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단체로서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새마을지도자포천시협의회 조직을 통한 대민봉사활동,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관리, 지역공익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 국제통일협력운동 등의 유공을 인정 받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시 여성지도자 워크숍

포천시 여성지도자 워크숍(work shop)이 산정호수 한화콘도 백운홀에서 개최됐다.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순임) 11개 회장단과 각 단체 회장들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서장원 포천시장의 격려사, 시(주)디비에스산업교육연구소 김윤기 대표의 '변화와 미래의 셀프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성공의 법칙, 웃음성공학, 내가 변화야 한다는 주제의 정성훈, 조영희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여성지도자로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습득해 개인의

변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 조직변화의 기본원리를 습득, 이해하고 조직의 변화와 관리에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격려사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서 협동심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서 협동심과 공동체정신을 배양하고 끊임없는 리더십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하는 송년의 밤

### 송우웨딩홀 140여 가구 200여 이탈주민 참석

대한적십자사 포천지구협의회(회장 윤옥순)는 13일 오후7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웨딩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전담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열렬한 단신 환영을 펼치고, 파블이 하나 없는 한국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흥겨운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이주석 도의원을 비롯해 김영자 시의원, 적십자북부봉사관 김경영 관장, 각 지구봉사회 회원과 북한이탈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고 포천시청, 좋은가장만들기, 농협포천시지부, 활동모임 등이 후원했다.

포천지구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각 지구 전담 봉사자들이 직접 준비한 가스렌지 등 생활 필수품이 선물로 전달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1부 내빈 소개와 축사, 국제적십자사 운동 기본 원칙 낭독에 이어 북한이탈주민 편

지 낭독, 봉사원 편지 낭독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봉사원 간의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 등을 편지를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한민국에 정착해 1주일 전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린 이혜옥씨에 대한 축하 꽃다발과 격려금이 전달되며 참석 북한이탈주민과 내빈들은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윤옥순 포천지구협의회장은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하는 4년째 송년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자축하고 싶다. 사선을 넘고 넘어 포천에 정착한 여러분과 적십자봉사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제는 언니와 동생, 엄마와 딸, 이모, 고모처럼 생활속의 아픔을 함께 의논하고 나누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한 것은 서로 믿음과 신뢰가 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한적십자사 포천지구협의회는 13일 오후7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웨딩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전담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 이해조문학제 독후감 공모 최우수작 이해조의 자유종을 읽고

### 세계를 울리는 자유종



김소라  
대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사람이 되어 압제를 받아 자유를 잃게 되면 하늘이 주신 사람의 직분을 지키지 못하는 어늘, 하늘과 사람 사이에 여자 되어 남자의 압제를 받아 자유를 빼앗기면 어찌 회한과 극난한 동물 중 사람의 권리를 스스로 버림이 아니라 하리오....."

자유종의 첫 구문의 일부이다. 이는 소설의 제목 '자유종'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즉 '自由鐘'은 '자유를 울리는 종'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대상의 쪽을 쬐어 본다면 '여성의 자유를 울리는 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소설은 여자들로 인해 어떤 자유를 말하고 그 자유를 통해 어떤 종을 울리려고 하는 것일까.

소설은 이매경 부인의 생일잔치에 모인 네 여자의 토론으로 이뤄진 이야기이다. 이매경 부인의 생일잔치에 모인 신실현, 홍국란, 강금운은 신실현의 토론회 제의로 잔치에 취하고 배부름이 아닌 진 시대와 민족을 직시하는 사투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여자로서 자유의 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며 더불어 여성의 교육과 여성의 지리의 자유성, 국문과 한문의 쓰임, 바르지 못한 관혼상제, 자식을 기르는 방법, 지식의 공물론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네 인물들 각 주장에 대해 비교적 자제하고 예시를 들어 말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비교 하기도 하고 인물(맹자의 비유)을 예로 들기도 하며 책(치유)을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한다. 네 인물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토론 형식으로 이뤄진 전개 속에서는 일반적인 소설에서 보여진 인물의 갈등, 사건은 볼 수가 없다.

네 인물들은 오로지 토론의 형식으로 여성으로서 자유의 종을

울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장한다. 소설의 허구적인 사실, 사건에 대한 갈등이 아닌 현실의 문제의식, 바른 인식 등에 대해 토론하는 정치적인 요소를 띠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예술적, 문학적 기능을 하는 소설의 역할을 계몽의식이 깊이 뿌리박힌 소설로 많은 여성들에게 각성시키려는 역할로 비겨 놓았다. 소설의 단순한 구조와 체제적이지 않은 인물들의 모습은 이 소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누구보다 정확하게 사회의 모순과 제도를 꼬집으면서 여성으로서 강한 비판의식과 해결방안을 내세우는 모습은 돋보인다.

이렇게 강하게 개혁하려는 모습이 이 소설을 존재하게 하는 힘일 것이다. 당시 현실에서 여성들의 토론회를 들어 진정한 여성의 자유의 종을 울리는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누구나 구보다 현실에 대해 바른 인식을 했을 때 비로소 바르고 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여성의 자유종을 울릴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것이다. 소설에서 네 인물들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현 시대에 있는 여성들에게까지 손을 뻗어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많이 보인다.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변화 중 하나는 여성의 모습일 것이다. 누군가의 뒷바라지만 해야 했던 학문이나 정치, 사회에 대해 무지했던 여성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과 매우 다르다. 정치계, 교육계, 언론계 등 어느 하나도 손을 뻗지 않는 곳이 없다. 또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낮은 수준의 일만으로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자유라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유종'에서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여자는 '금수'가 아닌 것이다. 사람의 권리를 찾는 것이다.

소설이 끝을 향해 갈 때, 네 인물들이 크나 작으나 간밤에 꿈 꾸어 나온다. 그 꿈은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대한제국의 개명, 대한제국의 독립, 대한제국의 안락'이다. 결코 작지 않은 이 꿈은 네 주인공들의 이상향이자 한 민족의 염원이기도 하다. 여성으로서의 이상만으로는 끝내지 않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상향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더 큰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자유의 종은 여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자유의 종을 울리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의 편에 속하던 여자의 편에 들어 말하면서 당시에 찬한 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강하게 손짓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실천해야 할 수 있는 혹은 실천해야 할 개개인의 많은 이들에게 각성시키고 싶은 것이 이해조의 의외이 아닐까.

더 이상 우리는 꼬꼬대, 끼끼하는 작은 울타리 속 금수가 아니다. 누구나 배우고 깨우치며 변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작은 울타리에서 나와 더 큰 세상을 내다보고 스스로가 세계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것이다. 소설에 나와 있는 현실은 매우 작다. 학문을 배우고 세계를 품는데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그 방법 또한 불평등했다. 과거의 작은 세계에서 막고 올라오려는 여성들의 모습은 현재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민족의 힘을 가지는 변화에 오르게 하는 불씨를 당기는 일이 되었다. 바로 이 소설 또한 불씨를 당기는 강한 힘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조금 더 큰 세계를 향한 자유의 종이 우리나라에서 울리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 필모텔 서유희 대표 소흘읍사무소에 100만원 전달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서 필모텔을 경영하고 있는 서유희(57)대표는 12월10일 오후2시 소흘읍사무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유희 대표와 연재남 소흘읍장장과 (사)대한속박업중앙회 북부지회 장무환 지회장, 포천지부 신재영 지부장, 배홍수 사무국장, 이상민 과장, 이무일 이사(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자문위원)가 참석했다.

연재남 소흘읍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흘읍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구입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무일 노인명예지사



필모텔 서유희 대표가 소흘읍사무소 연재남 읍장에게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은 좌로부터 신재영 지부장, 배홍수 사무국장, 서유희 대표, 연재남 읍장, 장무환 북부지회장, 이무일 이사, 이상민 과장)

## 월빙

### 부사의(不思意)

### 심원(心猿)과 의마(意馬)

심원(心猿)과 의마(意馬)라는 말이 있다. 심원과 의마라는 말은 공부방에서 흔히 쓰는 말이다. 심원이란 글자 그대로 원숭이 마음이란 뜻이고 의마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망아지란 뜻이다. 심원과 의마는 지구력(持久力)과 반대되는 말이다. 잠시도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들쭉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심원과 의마는 지구력뿐 아니라 집중력(集中力)과도 관계되는 말이다. 정신이 산만(散漫)하고 무언가에 쫓기듯이 불안해 할 때 이 말을 쓴다. 한마디로 말해 지구력과 집중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원숭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호기심도 대단하다. 무엇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 달려들고 본다. 옮겨치고 본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래서 심원이라 하는 것이다. 원숭이

## 심원=원숭이의 마음, 의마=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망아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도 마찬가지이다. 공연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한시도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한 곳에 정좌(定座)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이 서울 가고 대구 가고 한다. 심원과 의마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선방(禪房)이나 수련장(修練場)이나 공부방에선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 오래 앉아 있어야 지구력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긴다. 오래 앉아 있어야 기(氣)가 쌓이고 깨우침(覺)이 온다. 공부하는 수련생도 마찬가지이다. 오래 앉아 있어야 물리가 트이고 기억력(記憶力)이 증진된다. 풀 단지를 땀나드는 생쥐처럼 자주 들랑거려선 안 된다. 주위가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망주석처럼 오래 버티고 앉아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심원과 의마를 떨쳐버려야 한다.

선방(禪房)에선 마음을 비우고 무심(無心)의 경지에 들라고 한다. 수련장(修練場)에서도 그리 말한다. 선방이나 수련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울 가고 대구 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온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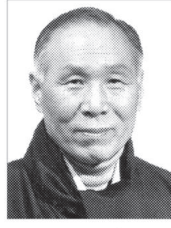
잡념(雜念)으로 꼭 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좌(首座)들은 비유야 한다. 그 생각까지도 버리고 말한 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그래서 나는 단계별로 버리라고 말한다.

첫째는 분심(忿心)을 버려야 한다. 둘째는 잡념을 버려야 한다. 셋째는 욕심(慾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의식(意識)을 버려야 한다. 분심이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닮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분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남을 닮하는가? 내가 있음으로서 상대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서 나와 상대의 관계(關係)가 설정되는 것인데 왜 남을 닮고 상대만을 보는가? 상대가 잘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리 하는 것이고 상대가 못하는 것도 내가 못해서 그리 하는 것이다. 나의 모습이 상대라는 거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영(反映)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남만 닮는가? 남을 닮하기 전에 나를 되돌아보고 먼저 자신을 성찰(省察)할 일이다.

잡념을 버린다는 것은 마음의 온갖 잡동사리를 버리는 것이다. 수련하면서도 서울 가고 대구 가

고 부산 가고 해서 안 된다. 마귀(魔)는 안 된다. 잡념(雜念)은 안 된다. 잡념(雜念)이 없는 마음(淸心)이 있는 데 정진할 수 있는가? 그러한 정신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심원과 의마를 잡제우라고 하는 것이다. 원숭이의 마음과 망아지의 망동을 잡제우라 하는 것이다. 심원과 의마를 잡제우고 나면 수마(睡魔)가 찾아온다. 졸음이 찾아온다. 선방이나 수련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 졸음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수면(睡眠)이라 하지 않고 수마 데 하는 것이다. 잡제우려 달려드는 마귀란 뜻이다.

지구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심원과 의마와 수마는 물리쳐야 할 삼대 적이다.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하는 않다. 반영(反映)되는 것이다. 암은 죽시 다스려야 한다. 시간을 팔면 전위(傳位)되기 때문이다. 심원 의마 수마도 마찬가지이다. 번지기 전에 다스려야 하고 남에게 당하기 전에 물리쳐야 한다. 숙전숙결(速轉速決)로 다스려야 한다.



이규임  
인도영성세계학원 명예학장

## 자유기고

많은 모임에서 송년회가 한창입니다. 고향친구부터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 동창회모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이웃들의 모임, 취미활동 동호회 모임 등등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읍주와 가무로 심신이 피곤하지만 반가운 얼굴과 쌓인 정 때문에 발걸이 멈추질 않습니다.

토요일 저녁 부부동반 고향친목회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도착한 친구들은 반가움에 손을 맞잡고 인사하며 나누며 맛난 음식과 술로 분위기를 익혀줍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계속 무뎠거립니다. 모임에 대한 불만과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슬그머니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보니 또 다른 회원들 불뚱이 솟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뚱한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며 맛난 음식과 술로 분위기를 익혀줍니다.

불만으로 통통 부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 표정... 눈에 띄는 화장과 의상으로 관심을 끌고 자기주장을 남에게 인정받으려 계속 말을 하는 그녀에게서 난 기억 속의 한 여자를 떠올립니다.

## 송년회에서

행연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새 옷 한번 입어보지 못한 어린 시절의 갈등, 시집가는 날에도 속옷 한 벌 사 입지 못한 서러움. 어려서 소풍가는 날에 전 계란과 사이다가 먹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졸라대다가 울고 갔던 아픈 기억, 돈을 벌기 위해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부채가산을 배웠고 첫 번째 신랑이 일찍 세상을 떠나 다시 만난 남자가 무능력해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사이에서 항상 기가 죽어 있었던 그녀는 아홉살 때부터 친구들이 자기 말을 들을 때면 친구를 찾지 않아도 내 가슴속에 선한 친구가 항상 웃고 있었으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화를 내기 전에, 누군가가 미워지려 할 때 먼저 내 마음속의 상처가 내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다면 굳이 친구를 찾지 않아도 내 가슴속에 선한 친구가 항상 웃고 있었으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2008년 쥐띠 해가 저물어가고 2009년 닭띠 해가 새겨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는 모임이 한창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송년회, 가족과 함께 보내기, 1차에서 9시까지 지만 하자는 119모임 등. 아마도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모습인 듯합니다. 어려울수록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울 정도로 사람들이 지혜롭고 정답다우리라 확신합니다.



용경자  
주부동반기자단 이사